

설 성수품 물가 안정세 과일류 가격 하락



▲ 지난 9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모습.

올해 설 성수품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.

9일 '뉴시스'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가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3만972원, 대형유통업체에서 31만7923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1.2%, 0.3%씩 하락한 것이다.

이번 조사는 aT가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전통시장(18개), 대형유통업체(27개)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.

품목별 가격을 보면, 무가 전통시장에서 136.4%, 유통업체서 177.0%씩 올라 1년 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배추 역시 전통시장서 67.4%, 유통업체서 49.4%씩 올랐다. 올해 채소류의 생산량 감소 탓이다.

가격이 내린 품목은 사과와 배 등 과일

류와 쌀이다. 사과는 전통시장서 19.8%, 유통업체서 33.0%씩 내렸다. 배는 15.4%, 10.4%씩 하락했다. 쌀은 전통시장서 3.4%, 유통업체서 2.5%씩 내렸다.

aT 발표에 따르면 채소류와 소고기 등 축산물은 설 명절 4일 전부터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 설 5~7일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.

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·배·소고기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평시 대비 1.3배 확대할 계획이다.

정부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·도 유통매장에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.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가공식품,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번 이내, 포장공간 비율 25%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. 음료, 과자류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류, 세제류,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도 이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.

기혼여성 10명중 7명 '명절 스트레스' 호소

한국의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'명절 스트레스' 를 호소하고 있었으며, 특히,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6일 '파이낸셜뉴스'에 따르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'사람인'은 성인남녀 3,507명을 대상으로 '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'를 조사했다. 그 결과, 58.3%가 '스트레스를 받는다'고 답했다.

그 가운데에도 기혼 여성은 10명 중 7명(70.9%)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혀 미혼 여성(59%), 기혼 남성(53.6%), 미혼 남성(52.4%)보다 많았다. 특히, 남성은 결혼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, 여성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11.9%포인트 더 높았다.

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보면, 미혼자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'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'(여성, 남성 각 59.7%, 55%, 복수응답)와 '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'(48.9%, 42%)를 나란히 1, 2위로 꼽았다. 3위는 여성은 '용돈,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'(31%)였으며, 남성은 '부모님께 죄송해서'(41.8%)를 들었다.

하지만, 기혼자의 경우는 성별에

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달랐다. 기혼 여성은 '용돈,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'(59.7%, 복수응답), '제사 음식 준비 등이 힘들어서'(42.2%), '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'(36.8%) 등 경제적인 부담이나 가사노동 같은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이었다.

반면, 기혼 남성은 '부모님께 죄송해서'가 64%(복수응답)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이밖에 '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'(21.4%), '친척들과 비교될 것 같아서'(16.8%) 등 심리적인 부분을 주로 꼽았다.

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기혼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.

기혼 여성은 '시부모 등 시댁 식구'(68.4%, 복수응답)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이어서 '배우자'(21.2%), '부모'(14.2%), '친척'(6.8%) 등의 순이었다. 이에 비해 남성은 '배우자'(29.2%, 복수응답), '부모'(27.6%), '형제, 자매'(18.9%), '친척'(18.6%), '처부모 등 처가 식구'(15.8%) 등이 비교적 고루 분포했다.

이에 비해 미혼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 모두 친척(각 64.1%, 55%, 복수응답)을 첫 번째로 꼽았고, 이어 부모(각 39.3%, 45.6%)가 바로 뒤를 이었다.

34년을 오직 한 길

벨플라워/세리토스/다우니/플러튼/롱비치/놀릭

빅토리 바디샵

VICTORY BODY & SHOP

LIFETIME WARRANTY!

최대의 시설 / 만족한 서비스 / 저렴한 가격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

☎ (562)920-9745~6

17441 Clark Ave. Bellflower, CA 90706
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